

## 2022 미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및 함의

민 정 훈  
미주연구부 교수

지난 3월 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정운영 방침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연설을 의미한다. 신년 국정연설은 대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에 미 행정부가 추진할 주요 대내외 정책 방향을 대통령이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신년 국정연설이 3월 1일에 발표된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며, 이러한 일정 조정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과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등 주요 법안의 입법화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62분간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인프라 재건 및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코로나19 등 주요 대내외 정책 의제에 대한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였다.

### 1. 2022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 (1) 우크라이나 사태

올해 신년 국정연설 초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는데 할애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푸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계획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자유세계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미국이 27개의 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군사적·경제적·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정권과 결탁한 신흥 재벌 및 부패한 지도자들이 축적한 부당이익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 한편 모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을 금지시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군을 유럽에 파병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서진(西進)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NATO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NATO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역량을 다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폭등 우려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여 휘발유 가격의 폭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2) 주요 국내 정책 의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은 이후 주요 국내 정책 의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있어 작년 3월에 통과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동 계획이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국민들을 교육하고 노동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하여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텀 업(bottom up)' 접근법이 미국을 위한 새로운 경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재건 및 공급망 재편 시도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현재 세계 1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내 인프라의 재건 없이는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경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에 초당적으로 통과된 물적 인프라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진행될 인프라 재건 사업은 미국을 변화시키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재건 사업은 미국 전역의 도로, 공항, 항구, 수로 등을 현대화하여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 재건 사업에 미국 제품이 사용(Buy American)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과 미국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대중(對中) 경쟁력을 제고시켜 줄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 시설을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리쇼어링(reshoring)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록적인 취업률 및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증대 및 생산 비용 절감, ▲미

국 내 인프라 재건 및 혁신, ▲미국 내 상품의 빠르고 값싼 이동,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더 나은 미국 건설(build a better America)'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보육비 절감을 통해 부모들이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은 새로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반면 최저법인세율 15% 도입 등을 통해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대비, 학교와 일터로의 복귀, 전 세계에 걸친 백신 접종' 등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소개하고,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 예산 삭감, 총기 규제, 투표권, 이민 문제, 낙태 및 성 소수자 권리, 사회 통합 의제 등 다양한 국내 정책 의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였다.

## 2. 2022 신년 국정연설의 평가 및 함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국내 문제들을 다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연설을 시작하였지만, 이후 대부분 시간을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국내 경제 정상화 등 국내 현안을 다루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국정연설의 주제 선택은 취임 2년 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국내 문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통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 설명에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